

보도시점 2026. 9. 7.(월) 조간
2026. 9. 6.(일) 12:00

배포 2026. 9. 4.(금)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 복지 문턱 낮춰 어려운 국민께 도움, 지금까지 약 21만 명 국민 이용 -
- 도서벽지·거동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 -
- 민간 후원 135억 원 달성, 민관 협력 복지안전매트 결실 -

※ ‘그냥드림’이 서류 장벽 뒤에 가려져 있던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낸 순간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은 30대 청년 A씨. 우울증과 극심한 생계 곤란에 시달렸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에 묶여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은 받지 못하던 상태였음.

현장 종사자는 까다로운 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선뜻 먹거리를 내어준 뒤 복지 상담을 연결했고, 지방정부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푸드마켓으로 연계를 도와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를 통해 현재 미참여 지역인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그냥드림’은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얻으며,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약 21만 명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 이 중 4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으며,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은 4,437명에 달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이용자가 복지 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 그냥드림 사업 발굴실적 >

(단위: 명, %)

구분	복지 상담(a)	읍면동 연계 의뢰(b) (b/a*100)	복지서비스 연계(c) (c/b*100)
총 사업 기간 (‘25.12.1.~’26.7.31.)	44,712	22,367(50.0)	4,437(19.8)
시범사업 기간 (‘25.12.1.~’26.5.17.)	25,599	11,888(46.4)	1,805(15.2)
본사업 기간 (‘26.5.18.~’26.7.31.)	19,113	10,479(54.8)	2,632(25.1)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가동한다. 지역별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표준 모델은 다음과 같다.

- ① 읍면동복지 연계형 (예: 전남 신안군 ‘그냥드림카’)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섬과 외진 마을까지 ‘그냥드림카’로 직접 찾아가고 있다.
- ② 지역자원 연계형 (예: 충남 논산시 ‘온동네 배달’)은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민간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지방정부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논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온동네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간다.
- ③ 공공기관 협력형 (예: 경기 부천시 ‘집으로 그냥드림’)은 지방정부가 우체국에 그냥드림 신청자 정보를 전달해 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물품을 전하고, 위기 징후에 따라 대상자를 지방정부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천시는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00억 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롯데지주·한국청과주식회사 등 국내 다양한 기업들과 전국의 상공회의소가 힘을 보태며 민간 후원금 누적 135억 원을 달성했다.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 혹은 보건복지부(mohw.go.kr) 및 전국 푸드뱅크(foodbank1377.org)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지의 문턱을 낮춰왔다”라며, “이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그냥드림’ 코너가 설치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그냥드림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권혜나 (044-202-3250)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승연 (044-202-3259)



□ 추진배경

-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사회적 낙인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
- 사회적 시선·서류 부담으로 정부 지원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의 신청주의 부담 완화 및 국민 보호 강화
 -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기본사회 실현 기여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필요시 위기가구 발굴·상담 및 서비스 연계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국민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 원 상당)
- (지원장소) 푸드마켓·뱅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
 - * 사업장 운영 현황은 보건복지부 및 '전국푸드뱅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이용절차)
 - (1차 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물품 지원
 - (2차 이용) 현장인력과 기본상담 완료 후 물품 지원, 필요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및 복지자원 연계
 - (3차 이용)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